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7일 수요일 음 6월 15일 (7월)

기상정보

호리고 비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며 오후부터 장맛비가 시작되었다. 아침 기온은 22~23℃로 시작하며 낮 최고기온은 26~28℃가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2.0m로 일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clouds, and sea level.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two days.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주의. Rows show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월드뉴스

인도네시아 발리 인근 규모 5.7 지진

주민·관광객 상당수 대피

인도네시아 발리섬 인근 해상에서 16일 (현지시간) 오전 8시 18분쯤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발리 5.7 지진으로 파손된 한두사원.

진앙은 발리 누사두아에서 83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진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91.6km이다.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이후 규모 2.5~3.2의 여진이 7차례 발생했다.

글을 올렸고, 영상센터로 전화해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화산과 지진 (Volcanoes & Earthquake) 앱에는 1600여명이 지진을 느꼈다고 신고 창을 눌렀다. 발리와 자바섬 동부의 주민, 관광객들은 이 앱에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어났다", "큰 트럭이 집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벽과 지붕이 흔들렸다", "30초 정도 강한 흔들림을 느꼈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지진 발생 직후 학교와 병원, 호텔에서 대규모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식도 SNS를 통해 전해졌다.

한국의 관광객도 트위터에 '발리에 와서 아침을 지진으로 깨네'라는

이날 지진으로 발리의 한두교 사원과 10여개의 초등학교 담벼락 등이 부서지고, 자바섬 동부의 주택과 이슬람사원이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주민도네시아 한국대사관도 한국 교민과 관광객의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허상문의 에세이로 읽는 세상



그늘

한낮의 햇살이 강렬하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해도 예상되지 않은 폭염이 몰려올 것이라 한다. 벌써 사람들은 햇살을 피해서 자꾸 그늘을 찾는다.

있는 은신처이다. 인류의 역사도 빛과 어둠이 함께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날씨가 더워지고 햇빛이 강렬하면 시원한 그늘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늘 속에 있을 때는 빛의 소중함을, 빛 속에 있을 때는 그늘의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린다. 우리는 항상 아쉽고 필요할 때만 그늘을 찾는다.

마당에 장끼들이 뛰어다니고 멀리서 뻐꾸기들이 해설피 울어대는 낮의 시간도 좋지만,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이 잠자리로 돌아간 적막과 고요의 시간이 나는 한없이 좋다. 이때에는 세상에서 오직 혼자만의 시간이 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늘 속에 있을 때는 빛의 소중함을, 빛 속에 있을 때는 그늘의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린다. 우리는 항상 아쉽고 필요할 때만 그늘을 찾는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늘 속에 있을 때는 빛의 소중함을, 빛 속에 있을 때는 그늘의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린다. 우리는 항상 아쉽고 필요할 때만 그늘을 찾는다.

그러나 빛과 낮이 소중하듯이 그늘과 밤도 소중하다. 낮의 시간만큼 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밤은 휴식과 평화와 생상을 가능케 하는 시간이다. 밤은 소란하고 번잡스러운 낮의 시간을 피해 안식을 취할 수

있을 때는 빛의 소중함을, 빛 속에 있을 때는 그늘의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린다. 우리는 항상 아쉽고 필요할 때만 그늘을 찾는다.

있을 때는 빛의 소중함을, 빛 속에 있을 때는 그늘의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린다. 우리는 항상 아쉽고 필요할 때만 그늘을 찾는다.

동과 희망을 생각한다. 낮은 대화하며 활동하는 시간이지만, 밤은 성찰하며 번뇌하는 시간이다. 번뇌한다는 것은 자기성찰로서 세상의 어려움을 녹여내고 다스리기 위해 고민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어둠과 적막을 거부하며 싫어하지만, 밤은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이다. 이것은 인생의 이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오직 빛만 바라보며 고통 없는 삶을 원하지만, 고난 없고 그늘 없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인생에서 수시로 다가오는 고난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어둠은 아득하고 힘든 시간이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힘든 시간이 지나야 내일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간이 올 수 있다. 무엇보다 양지에서만 너무 쉽게 구하려 들지도 말고, 고난 없는 삶을 바라기만 해서

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서 울면서 태어나지 않았던가. 울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어둠 없는 삶이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양지에서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늘에서 힘들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 덕분에 사회는 이루어진다. 그늘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밝음이 되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이 세상은 유지되고 있다.

양지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도 그늘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사람도 간혹 뒤를 돌아본다면 이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이 분명하다. 개인에게서도 사회에서도 빛과 그늘이 함께할 때 이 세상은 더 아름답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문학평론가·영남대학교수>

열린마당

농업에 사회적 가치를 입히다



허종민 제주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최근 사회적 농업이 화두다.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 등에게 재활, 농촌생활 적응, 자립을 목적으로 돌봄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농업을 말한다.

범으로 운영해보고자 시도하고 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농과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을 접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연동119센터 현장 실습을 마치며



김수운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연동119센터에 처음 실습을 갔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동시에 응급처치 방법, 장비 등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운 부분들을 실제 환자에게 적용 한다는 생각에 긴장도 됐다. 한 편으로는 나에게 주어 진 4주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해보자는 마음이 교차했다.

처음으로 환자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반면 허무했던 출동도 있었는데 단순히 집에 데려다 달라며 구급차를 약용하는 신고들이었다.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구급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웠다.

사회적 농업으로 학생들이 갑자기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진로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알려지고 농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다면 그것 또한 농업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부여받는 기반이 된다고 본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출동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였는데, 현장에 도착해보니 구급대 도착 전에 보호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다행히 호흡이 돌아와 있었다. 심정지 상황에서 구급대 도착 전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실습은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다. 서툰 것도 많았지만 반장님들께서 잘 알려주시고 몰랐던 장비와 약물의 이름과 사용법을 알게 되어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

4주 동안 소방공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짝 앞으로 향했다. 실습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 공부해서 나의 꿈을 꼭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email.

Grande보청기 advertisement with a photo of a man and text about hearing aid services, including a 60% discount and various support services.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advertisement for remodeling services, listing various types of work like kitchen and bathroom renovations.

고개속인 advertisement for a clinic, highlighting services for men and emergency treatment for urinary stones.

하귀농협장레식장 advertisement for a restaurant, listing features like independent dining rooms and a large parking lot.